

'94학년도 입학전형 개선논의 활발

내신 반영비율 증가, 본고사 시행등이 골자

94년 시행될 대학본고사에 대해, 본고사에서도 신중론(문리대·사학) 교수들 위임장으로 하여 각 학과별로 구성된 입시연구위원회 등 각종 연구모임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신용협회는 본고사를 위한, 7개안을 가지고 토론회에 있다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내신성적을 40%이상 하는 것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본고사등의 반영비율 및 과목선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어과 동문회 장학금 지급 서울 지역주민도 90만원 전달

서버어과 제1회 졸업생 20여 명은 "81학번 장학금"을 설립하여 지난 18일 과총회시 학생들에게 장학금 1백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학기부터 폐학기당 1백만 원씩 2명에게 지급될 이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곤란하거나 학과 생활에 충실한 자,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주어진다.

김한상 과장은 이에대해 서반어 과 동문회에서도 서버어과 발전기금으로 동문회 장학금을

지급까지 도출된 내용중에 인문·사회·자연계열의 경우 내신 40%, 중앙교육평가원에서 출제하여 언어, 수리·탐구, 영어에 대해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40%, 영어를 보는 본고사 (자연계열은 수화) 20%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체능계는 내신 40%, 실기 40%, 대학수학능력시험 20%가 논의되었으며 사범계열의 경우 내신 40%, 대학수학능력시험 30%, 본고사 20%, 인성·면

총선 대비 귀향단 모집 선거하루전 학교서 출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학생들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귀향단을 모집하여 오는 오후 2시 출발할 예정이다.

부재자 신고를 하지 못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마산, 강릉 등을 연고지로 갖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 및 단체 학생회, 총학생회에서 신청을 받아 관공방을 대절, 23일 오후 2시 출발하게 된다.

한편,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바쁜 사업일정에 미처 모집하지 못해 오늘 오전 강의실 방문을 통해 투표를 위한 귀향단투표의 의의를 알려내고 즉석에서 부산, 대구, 대전, 강릉, 광주 등 5개

가정대 비상학생 총회 건물신축 진척사항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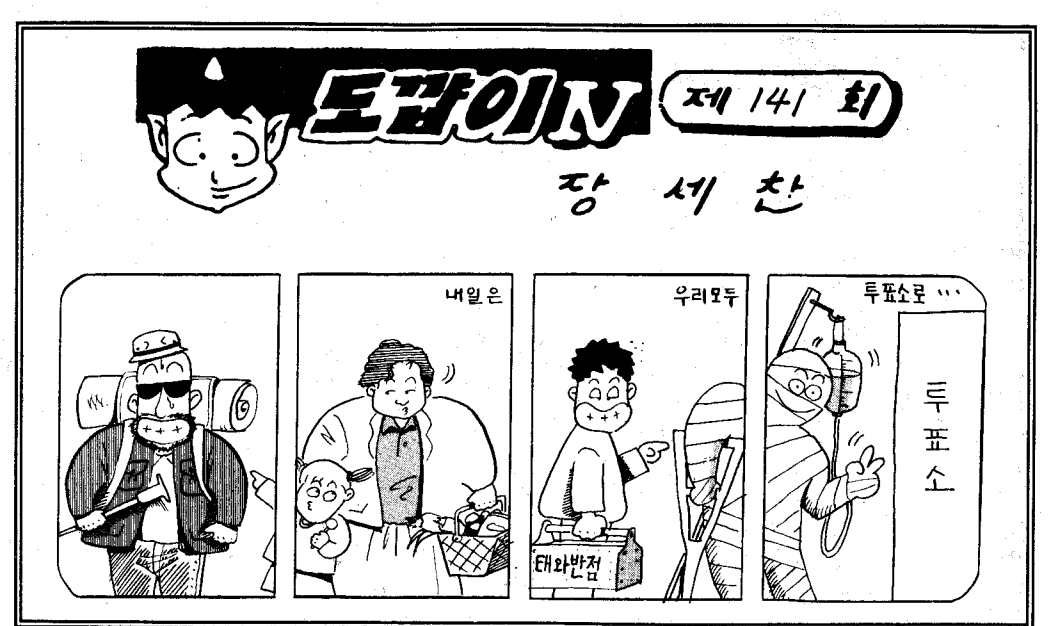
가정대 학생회는 지난 18일 1백13명의 가정대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문리대 뒤 공터에서 가정대 건물 신축문제를 안전으로 비상학생총회를 가졌다.

이번 총회에서 가정대 학생회는 지난 방학중 학생회와 학교측의 협상내용들과 진척사항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이후 일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가정대 학생회는 방학 학교당국과 학장, 건설부의 협상을 통해 3월초 신축 가정대 건물 설계도면 완성을 제안하였으나 각 부서의 무성함한 태도로 가정대 건물의 9월말 착공이 불투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우진 (의상·3) 가정대 부학생회장장은 이후 선전작업과 교수들의 9월말 착공 지지를 유도하여 가정대 건물이 일장대도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줄준위 집행부 구성 위원장에 한상우군 선임

서울캠퍼스 줄준위위원회(이하 줄준위)의 선임위원장에 한상



故 이수병 추모 기금 마련 일일주점

정경대 경제학과 학생회는 28일 화요일 오후 11시부터 '故 이수병' 동문 17주기 추모사업 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주점'을 운영한다.

경희대인문대학, 대학원 총학생회, 서울 총학생회, 노동조합, 4월 혁명연구소, 민주화운동

27일, 대학원 총학 발대식 및 총회

대학원 총학생회는 27일 오후 5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7대 총학생회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날 발대식은 1부 신입총학생회장 현충제(사학·석사3기)군과 집행부 소개, 2부 각 대학원 대표자 총회 등의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미교과 학생회실 마련에 부심

사범대 미술교육과 (이하 미교과)는 학생회실 공간확보문제로 학교측과 마찰을 겪고 있다.

서울캠퍼스에서 유일하게 학생자치공간이 없는 미교과는 학교측의 6층복도를 막아 학생회실로 사용하라는 의견에 이의를 제기, 책상등 사무기자를 사대위에

"주인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 플랑카드와 인격

요즘 선거철을 맞아 기호와 이름을 알리려는 플랑카드를 서로 높이 달라고 각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다.

이름 알리기 경쟁으로 낮은 인격을 만화화하려든 실추된 인격을 높이기에는 너무나 역부족 인 듯.

인물 선전도 좋지만 아무리 허공에 이름을 높이 올린들 인격이 올라 가겠소?

취재노도

◇... 본질물 호소문

정경대 강의실 철관 구석에 간절한 호소문이 있어 노트를 살펴보니, "지난 주 이곳에서 사건을 일으켜 버렸어요. 보신 사람은 ○○에게 알려주세요."

사건진 물건의 나열만 기미가 안보이자 그 외로운 주인의 호소문은 더욱 처량하게만 보였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관련 소홀이 아닌 개각간 사람이 양심소홀이 아닌지요.

◇... 도강생일리아

교수님들께서 교단에 서면 '울고 넘는 박달재'와 '눈물 젖은 두만강'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시는데.

◇... 주인을 찾습니다.

"불러도 대답없는 주인이여, 기다림에 올라 자진 소포물이여."

해가 바뀌어 업무가 달라져도 여전히 찾아가는 이 없는 동행들의 등기를 처리로 고심하는 서천을 찾아가는 한숨 섞인 말이로.

◇... 선거합시다.

공: 공화헌 약속들속에서 명: 명분을 찾기는 어렵지만 선: 선란을 뽑는 날까로운 눈으로

거: 거리낌없이 투표합시다.

◇... 먼지 잃은 민생치안

최근 '마른 하늘에 날벼락'

서울 자치회비 분배 확정

1인당 7천3백원중 단과대에 2천4백50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1학기 자치회비 예산안을 확정분배했다.

총학생회는 학생 1인당 자치회비 7천3백원중 4천5백원에 대한 총학생회, 단과 학생회 배분을 5:5.6(총학 배분액:2천50원, 단과 배분액:2천4백50원)으로 하고 올해 사업일정을 운영집행하게 된다.

가정대, 사범대, 약학대를 약소 단과로 규정하여 1인당 2백원을 총학생회 사무국장과 해당 단과장의 합의하에 지원하게 되며 이 지원금은 해당 단과의 공간부족과 건물건설 등의 해결을 위한 추진비용으로 쓰여진다.

총학생회 산하 특별위원회중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학원자주추진위원회,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 의 예산은 학생자치회비중 17.8%인 1천3백원을 4개 특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또한 불·가을 교지 '교향'을 생산하는 교향전집위원회의 예산은 1인당 7천3백원으로 총당되며 학생자치회비중 17.8%를 차지한다.

법

노후가 취해 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정권에 취해 있고 그 아래 하수인은 폭력이라는 취해 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여의도에서 부는 바람에 취해 있고 자식들은 권위에 취해 있다. 그래서 얼마전 모가수의 혼들혼들이 유명했었다 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를 취하게 만들었던 것은 민자당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한맥회' 정체가 아니었나 싶다.

오랜 옛날도 아니다. 바로 몇달 전 시민들의 눈에 비친 대학생들의 모습은 강경대세의 주검앞에서 '민주화'를 '폭'이루고야 말았다'고 굳게 맹세하던 모습이였다.

바로 그후 김규정장을 보내면서 취진 두 주먹에 힘겨운 주된 학생들의 모습이 아직도 시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무도' 하루하루에 당한 대학인의 모습으로 겹쳐오는 또 하나의 모습. 망종과 문.

아무리 선거혁명을 이룰 마지막 기회라고 외쳐부른 무슨 소용인가. 강자 앞에선 피리만 내비치는 법의 보호 아래서 탈법이 설치고 있으니.

대체 정치가 무엇이고 정당이 무엇이지가 우리의 대학생들을 이토록 타락시키는가.

모든 시민이 그 소식에 분노했다. 그러면서도 법을 지키는데 앞장섰다고 다짐하는 거대여당의 철면피한 모습을 발견한다.

내일의 나라를 책임져야 할 대학생들에게 그같이 부패한 유산을 남겨주면서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고 큰소리치는 도덕성, 한심스럽기보다는 비애를 느낀다.

알망하고 또 알망하다. 한낮에 호통을

"법은 죽어버렸다"

을 밝히고 다녀도 질척거리 나갈 수 없다.

우리의 검찰은 "법은 사랑처럼/어디에 에 있는지 모르는 것/사랑처럼 억누르지 못하고 버어날 수도 없는 것"이라는 W. H. 오든의 시를 모르는 것인가.

법은 대중의 이익을 위해, 인류의 경합위에서 행동하는 인류지혜의 최종결과다. 때문에 법은 강자가 민사를 임의로 처리할 수 없으며, 오로지 그 나라의 국민을 보호하며 국민이 법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다시 오든은 노래한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법은 우리의 운명/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법은 우리의 국가/약자에겐 더 더욱 강하고 강자에겐 더욱 약해지는 저 검찰의 행위도 과연 우리의 국가인가."

검찰은 언론에 의해 이미 밝혀져버린

그리고 '한맥회'의 정체를 폭로하는 중언까지 나왔는데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팔짱만 끼고 있다는 비난의 언론이 빗발치자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반해 국민당에 대학생 동원을 앞선해 주고 돈을 받은 '두잇이벤트'에 대해서 즉각 구속이 잇달았다.

그들에게 이렇듯 선거를 혼탁하게만 만들어가는 민자당의 수뇌부 즉 YS, JP를 비롯한 김윤환원내총무등의 구속과 직무유기 일삼는 일선검사들의 구속이 아무리 컸대들 울려 조장해본들 '그'는 것이다. 그들에게 철저한 내막을 밝히라고 외쳐부른 헛되고도 또한 헛된 것일 뿐이다. 때문에 오든은 다시 법을 노래한다.

"또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법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으며/법은 죽어버렸다"고,

(智理山)

산업역군의 병역특례?

수원지방 병무청

국가산업의 기능인력지원을 위하여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던 군부대를 마친 것으로 해
주는 제도.

대상 및 자격

- 현역입영대상자: 국가기술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사람
- 입영대상자: 국가기술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사람 또는 취업후 1년내 자격을 취득할 사람

취업분야

- 공업·공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 방위산업체 (군공장 또는 군정비장 포함)

제정업체

- 정부가 지정한 전국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체
- 인건지급 및 경기도 군내: 1, 131개 업체
- * 취업할 사람은 특례업체에 문의 (각도 지방병무청 및 시·군·구의 민원실 각 지방노동사무소, 상공회의소에서 업체 명부 열람가능)

문의처

- * 취업하여 사원으로 보수 받고, 그 분야에서 5년간 성실 종사하면 방위소집을 마치는 것으로 인정

취업절차

취업희망자 → 근로계약 → 취업절차 → 특례업체

취업희망자 → 취업절차 → 특례업체

취업희망자 → 취업절차 → 특례업체

문의전화번호

문의처	전화번호	문의처	전화번호
수원지방병무청특례과	(0331)44-5407 (상공회의소)	인천	(032)761-2905~6
수원지방병무청민원실	(0331)5-3911	부천	(032)663-6601
각구·시·군민원실		수원	(0331)44-3451~5
(노동부)		안양	(031)47-9171~6
인천지방노동청	(032)421-4716	화성	(0337)73-7441~4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032)45-2400	동인	(0335)32-9812~3
수원지방노동사무소	(0331)45-2400	안성	(0334)73-5888
부천지방노동사무소	(032)63-2400	평택	(0333)655-6813~5
안양지방노동사무소	(0334)48-1919	성남	(0342)43-7501~5
안산지방노동사무소	(0345)83-9671	성남	(0336)33-3961~4
성남지방노동사무소	(0342)2-1919	인산	(0345)491-3030~3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	(0351)42-1919	김포	(0341)83-6655~6
경기북부	(0351)42-5811~5		

방위병 복무대상 특례보충역 복무제도안내

정부에서는 산업체의 기능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제까지는 일정한 기술자격 소지자에 한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던 제도를 개선하여 방위소집 대상자는 기술 자격증이 없더라도 특례업체에 취업하면 특례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는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절차

가. 기능자격소지자: 특례업체에 특례보충역 편입대상 근로자로 취업하면 특례보충역에 편입

나. 기능자격 미소지자 (고교학력이하자에 한함): 특례업체에 특례보충역 편입대상 근로자로 취업하면 특례업체에서 차입내 직접훈련 등을 실시하여 1년내에 기능자격 취득시 특례보충역에 편입

다. 취업절차: 지원 희망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 취업신청과에 구직신청하거나 특례업체에 직접 취업할 수 있음.

출원기간

특례보충역 편입대상 근로자로 취업한 자는 방위소집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입영일 5일전까지 연가인 출원하면 연가 해부

복무기간: 5년

특례보충역 편입대상 근로자로 취업한 자는 방위소집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입영일 5일전까지 연가인 출원하면 연가 해부

복무등의 처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

* 기타 취업에 관하여 의문 나는 사람은 가까운 노동사무소나 지방병무청민원실 (후면 참조)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충역 편입지원안내전화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지방노동청	(02)272-1919	광주지방노동청	(062)524-1919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02)540-1887	전주지방노동사무소	(0632)252-1919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02)701-1919	제주지방노동사무소	(064)23-2400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02)677-1919	이리지방노동사무소	(063)855-2400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02)926-1919	군산지방노동사무소	(0654)3-1919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02)854-1919	목포지방노동사무소	(0631)73-1919
춘천지방노동사무소	(0391)3-1919	여수지방노동사무소	(0662)655-6881
태백지방노동사무소	(0395)52-1919		
강릉지방노동사무소	(0391)3-2400	대전지방노동청	(042)26-2400
원주지방노동사무소	(0337)43-1919	충주지방노동사무소	(0431)52-1919
영월지방노동사무소	(0337)72-1919	충주지방노동사무소	(0441)43-2400
		천안지방노동사무소	(0417)55-2400
부산지방노동청	(051)466-2400	보령지방노동사무소	(0452)33-1919
부산동부지방노동사무소	(051)54-1919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	(051)328-1919	지방법무청민원실	(02)754-3911~2
마산지방노동사무소	(0551)45-2400	서울지방병무청	(02)772-4540
울산지방노동사무소	(0522)74-2400	부산지방병무청	(051)803-3911
전주지방노동사무소	(0639)52-1919	대전지방병무청	(053)255-3911
대구지방노동사무소	(0557)43-2400	수원지방병무청	(0331)5-3911
		광주지방병무청	(062)223-3911
대구지방노동청	(053)425-9183	대전지방병무청	(042)26-3911
대구북부지방노동사무소	(053)753-9166	충주지방병무청	(0391)54-3911
포항지방노동사무소	(0562)83-1919	충주지방병무청	(0431)4-3911
구미지방노동사무소	(0546)463-2400	전주지방병무청	(0652)84-3911
영주지방노동사무소	(0572)2-1919	전주지방병무청	(064)22-3911
안동지방노동사무소	(0571)2-1919	청원지방병무청	(0351)803-3911
		경북지방병무청	(0351)43-3911
인천지방노동청	(032)884-6660	강릉지방병무청	(0331)43-3911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032)92-2400	부천지방노동사무소	(0332)63-1919
수원지방노동사무소	(0331)45-2400	안양지방노동사무소	(0343)48-1919